

장소자산(場所資産)의 변용(變容) 양상(樣相)으로 본 ‘시코쿠헨로’

변정아*
free417@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관광콘텐츠로 변용 |
| 2. 1,200여 년 축적된 역사 자원 | 5. 마치며 |
| 3. 시코쿠의 지역문화와 정책 | |

主題語: 시코쿠헨로(Shikoku Henro), 장소자산(Place Asset), 역사자원(historical resources), 지역정책(regional policy), 관광콘텐츠(tourism content)

1. 들어가며

2014년 일본은 「마스다보고서」¹⁾에서 “현재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까지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했다. 여기에 지방의 젊은 세대까지 도쿄(東京)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일본 인구는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즉 일본 인구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나의 ‘극점(極點)’을 이루어 지방 인구는 서서히 감소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17년 1월 21일자 경향신문²⁾에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에서 ‘한국 지방의 40%는 이미 붕괴되었다’”며 지방 소멸론을 시사하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통계청 분석도 2040년 전국 지자체 72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어 고령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충남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2040년에 소멸될 위기에

*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강사

1) 「마스다보고서(増田リポート)」는 2014년 5월에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에서 발표한 보고서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 저출산 극복 및 지방활성화 전략(成長を続ける21世紀のために「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마스다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반향이 일어나 지방의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11738001 (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농인 마을은 351개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현상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인구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 위기를 넘어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공통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작은 지역인 시코쿠(四国)의 대표적인 장소자산³⁾인 ‘시코쿠헨로(四国遍路)’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장소자산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별다른 자원이 없는 시코쿠에서 지역 살리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시코쿠헨로’이다. 고유한 전통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여 발전시키며 현재화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시코쿠헨로를 이동하는 ‘길’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성과 역사성을 가진 장소로 간주하여 장소자산으로 본다.

일본에서 시코쿠헨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하지만 국내에서 시코쿠헨로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시코쿠헨로의 역사와 발생, 흥법대사나 불교와의 관련성을 밝히거나 순례자 중심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시코쿠헨로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시코쿠헨로를 경험하고 소개하는 여행안내서와 같은 출판물⁵⁾ 정도가 현

- 3) 장소자산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 요소나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할 경우 판매가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을 가리킨다. 장소자산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삶의 질 요소, 문화적 요소 등 매우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자산으로 결정된다. 장소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생태적 장소마케팅은 양질의 생태자원을 마케팅 자산으로 사용하며, 문화적 장소마케팅은 지역 혹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관광객 유치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산업적 장소마케팅은 산업적 입지가 좋은 장소로 지역적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을 끌어들이므로써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95&page=50&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 4) 호가리 다케시(帆荊猛 : 2010)는 시코쿠헨로의 걷는 행위가 현대인의 치유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모리 마사토(森正人 : 2001)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코쿠헨로와 헨로길이 문화재 및 문화유산과 지역의 자원으로서 재발견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종교적인 의미를 헨로길에 부여하고 있다. 신조 쓰네테츠(新城常三 ; 1982)는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각 시대에 따른 시코쿠순례나 이세참배, 시코쿠헨로 등 각종 순례의 형태를 다루면서 순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고 있다. 호시노 히데노리(星野英紀 ; 1981)는 문화인류학의 시점에서 일본에서의 순례와 타문화의 순례를 비교해서 논했다. 민속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케다 아키라(武田明 ; 1976)는, 남자의 경우 시코쿠순례를 다녀온 다음에야 비로소 젊은이들의 일원이 될 수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시코쿠순례를 마쳐야 시집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순례가 성년식 행사의 하나처럼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통과의례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야쿠도시(厄年)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야쿠도시가 되면 신불(神佛)의 가호를 받고 몸을 조신하게 하는데, 특히 시코쿠지방은 이 액막이를 위한 행사로써 88개소의 절이나 씨족 신에게 기원을 했다는 예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김지영(2009)『남자한테 차여서 시코쿠라니.서른살 오헨로 혼자 걷는 1,400km』책세상/ 최상희(2016)

상황이다.

시코쿠헨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박규태(2006)와 이은경(2012)은 시코쿠헨로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순례 그 자체에 집중하여 서술했고 이는 시코쿠헨로에 대한 지식정보에만 편중되어 있다. 노성환(2017)은 시코쿠헨로의 88개 사찰 중 행기(行基, 668-742)스님과 관련 있는 사원의 불상을 비교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문화를 찾는 논의를 했다.

그 외에 시코쿠헨로와 한국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손장원(2016)과 이경화(2015)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이식한 시코쿠헨로의 88영장(靈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각각 인천과 목포 유달산을 중심으로 88영장의 흔적을 찾아 실체를 밝히려는 논의이다. 일본이 시코쿠헨로의 88개소를 한국에 이식한 것은 재조(在朝)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식해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을 실현한 또 다른 정신 의식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코쿠헨로’가 가지고 있던 역사자원을 현재 시코쿠의 관광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자산의 변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시코쿠헨로를 장소자산으로 재발견하여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양상에 착목하여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소멸론에 따른 지방 위기를 벗어나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학문적 담론 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1,200여 년 축적된 역사자원

시코쿠는 일본을 구성하는 주요 4개의 섬 중, 전체 면적의 약 5%에 지나지 않는 가장 작은 섬이다. 지역개발이 다른 도시에 비해 뒤떨어진 시코쿠는 역사문화자산으로 도시의 명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1,2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코쿠헨로’, 약 1,500년 역사의 중요문화재 ‘도고온센(道後温泉)’, 에도(江戸)시대 이전의 덴슈(天守)를 보존하고 있는 ‘마쓰야마성(松山城)’, 에도시대의 일본 정원을 대표하는 ‘리쓰린공원(栗林公園)’ 등이 시코쿠를 대표하는 역사자원이자 장소자산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들이 낙후된 시코쿠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상생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코쿠헨로’는 일본을 대표하는 장소자산 중 하나이다. 시코쿠헨로는 시코쿠

『시코쿠를 걷는 여자-시코쿠 순례길. 혼자이면서 함께하는 여행』푸른향기 등의 실제 여행기를 담은 단행본이 출판되고 있다.

섬 4개의 현 전체를 관통하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역사자원들과 달리, 시코쿠 전체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지자체끼리의 협력으로 효과를 상승시켜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시코쿠헨로는 홍법대사(弘法大師, 774~835)가 시코쿠 전반에 걸쳐있는 88개의 사찰을 <그림1>과 같이 번호 순으로 수행했던 사찰순례이다. 도쿠시마(徳島)현의 1번 사찰 료젠지(靈山寺)를 출발하여 고치(高知)현, 에히메(愛媛)현을 거쳐 가가와(香川)현의 88번 사찰 오쿠보지(大窪寺)에 도착하는 순례길로 1,450km 정도에 달한다.



<그림1> 시코쿠 오펜로(四国おへんろ)⁶⁾

시코쿠헨로는 4개의 현마다 지역 별 수행의 가치와 목적이 정해져 있다. 도쿠시마현은 ‘발심(發心: 결심, 행동을 시작하는 것)의 도장(道場)’, 고치현은 ‘수행(修行: 정신성을 높이는 트레이닝)의 도장’, 에히메현은 ‘보제(菩提: 번뇌를 끊고 극락정토로 향하는 것)의 도장’, 가가와현은 ‘열반(涅槃: 번뇌를 초월한 해탈의 경지)의 도장’이다.

시코쿠는 일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다양한 수행장(修行場)이 있던 곳이였다. 그 중에서 사누키(讃岐, 지금의 가가와현)에서 태어난 홍법대사가 자주 이 지역에서 수행을 하고 88개소의 사찰 등을 선별하여 88개소 영장을 개창(開創)했다고 전해진다. 이 홍법대사의 수행 길이 헨로이다. 처음에 헨로는 수행승(修行僧) 등이 중심이었지만 홍법대사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시코쿠헨로에 나섰

6) <https://www.shikoku88.net/ohenro-guide/map/> (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다. 그리고 흥법대사와 관계된 지역으로서 누구나 한번은 방문하고 싶은 영장으로 발전해 왔다.

시코쿠헨로를 체험하는 방법은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순례를 하는 ‘준우치(順打ち)’와 88번에서 1번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사카우치(逆打ち)’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전통적인 순례방법 외에도 순례길 전체를 지역으로 분할하여 도는 방법과 원하는 곳만 도는 방법 등 다양한 코스가 제시되고 있다. 시코쿠헨로는 다른 종교, 또는 일본의 다른 지역 순례와 다르게 종교적인 의미 보다는 순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코쿠헨로를 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구원을 받는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이다.

요즘 순례라고 하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릴 것이다. 예수의 열두 제자였던 야곱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향하는 약 800km에 이르는 길이다. 1987년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 1947-)의 『순례자』가 출간된 이후 더욱 유명해졌으며,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성지순례가 활발해졌다. 순례는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특별한 성지를 목표로 그 목표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왕복형과 시코쿠헨로처럼 88번 사찰까지 도는 회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왕복형과 회유형은 최종 목적지가 절대적인 성지에 도달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회유형인 시코쿠헨로는 절대적인 성지를 갖지 않으므로 시코쿠헨로의 88번 오쿠보지(大窪寺)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시코쿠헨로의 88개소의 사찰의 본존(本尊)은 아미타여래, 석가여래, 약사여래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88개소의 사찰 대부분은 진언종(眞言宗)이지만, 임제종(臨濟宗), 천태종(天台宗), 시종(時宗) 사찰도 있다. 이처럼 시코쿠헨로는 하나의 종파에 얽매이지 않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순례이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선 유연한 방식의 순례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코쿠헨로는 88개소의 사찰을 전통적 방법인 번호 순에 따라 돌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며칠 동안 할 것인지, 시코쿠순례는 전적으로 순례자의 선택인 것이다. 요즘 시코쿠헨로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국인 등에게 인기를 얻게 된 요인이 강제적이지 않고 유연한 순례방식 때문이다.

시코쿠헨로의 88개 사찰에는 장소성과 연관되어 있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존재하고 88개소의 사찰 순례 중 각 지역 고유의 풍토, 풍경을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시코쿠헨로의 1,200년간 축적된 역사자원에 내재된, 아직 발견하지 않은 가치를 재발견하여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자산이다.

시코쿠헨로의 순례는 헤이안(平安)시대 후기에 원형이 만들어지고 중세 무로마치(室町)시

대는 승려와 귀족들에게 정착이 되고 근세에는 일반에게까지 확대되어 대중화되었다. 순례 행위 자체는 현재까지 전통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지만 시간에 따라 형태, 의미, 목적은 다소 변용되었다. 따라서 시코쿠헨로도 시대에 맞게 종교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병의 치유·공양 외에, 마음의 위안을 찾아 휴식과 건강증진, 등산이나 하이킹의 연장, 관광여행의 일환 등, 다양한 형태로 현대인의 힐링 여행으로서 재발견되고 있다.

3. 시코쿠의 지역문화와 정책

시코쿠헨로는 시코쿠가 자랑하는 지역문화이기도 하다. 특히 ‘오셋타이(お接待)’라고 하는 시코쿠헨로만의 접대문화가 있다. 오셋타이는 순례자에게 지역주민들이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례자를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홍법대사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순례자를 접대하면 그 만큼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코쿠헨로의 오셋타이는 무조건적인 선의와는 차이가 있어 서로 간의 이익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순례자를 접대하는 것은 홍법대사에게 간접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행위이다. 또한 순례자는 접대를 해 준 사람에게 납례(納禮)를 건넨다. 이 납례를 받은 접대자도 실제 순례자의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문화의 상호간 교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대문화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접대 속의 호스트와 게스트는 어떤 형태로든 상호 이익을 누렸다.

시코쿠헨로는 시대의 정책, 특히 근대적인 교통망의 정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시코쿠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본의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 발달과 항만시설 구축으로 배로 인한 왕래와 자동차 이용은 순례방법에도 큰 변화를 미쳤다. 도보로만 이루어졌던 순례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리성으로 인해 순례길의 코스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교통수단과 정보전달 수단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관심을 갖도록 연결한 것이 ‘신문’이다. 이 신문을 통해 지식 계층의 사람들에게 시코쿠의 순례길을 소개하며 관심을 끌게 만든 것이다.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1908년 4월 17일자)에 실린 시코쿠 기획사는 ‘시코쿠’, 혹은 ‘순례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 독자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했다.’⁷⁾ 이 기사는 순례가 갖는 종교적 의의보다 역사적, 지리적 독자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코쿠헨

7) 森正人(2014)『四國遍路』中央公論社, p.150

로의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1934년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은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20회에 걸쳐 ‘시코쿠레이조신헨로(四国霊場新遍路)’라는 헤드카피로 시코쿠헨로 관련 특집을 기획하여 기자 4명의 직접 체험담을 소개하였다.⁸⁾ 이 기획기사의 영향으로 신앙과 취미를 겸한 도시인의 새로운 헨로 여행인 ‘모던헨로’가 유행하게 된다. ‘모던헨로’는 과거의 정형화된 순례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코쿠헨로의 이동 수단이 전통적인 도보순례만 강조하던 것에서 기차, 전차, 버스와 같은 다양한 교통을 이용하면서 순례를 다양화시켰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교통기관의 연료인 가솔린을 군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기존 버스는 목탄을 연료로 하는 버스로 대체되었다. 연료 사정이 더욱 나빠져 1941년에는 가솔린 배급이 정지되자 단거리 노선은 버스운행 대신 마차가 등장하는 구간도 생겼다. 따라서 순례길은 시대 상황에 따라 군사적, 경제적 이유를 대신할 건전한 신체의 육성이라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통한 도보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시코쿠헨로도 전통의 도보순례를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한 지역의 장소자산이 지속적으로 소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시코쿠헨로는 시코쿠 지역 살리기의 큰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코쿠 4개현의 지자체는 공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시코쿠헨로의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정책에 따른 시코쿠헨로의 변용을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아베(安倍) 정권의 ‘관광입국’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코쿠 4개현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시코쿠 광역관광 주유루트 형성 계획’(<그림2>)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른 시코쿠의 개발 주제를 ‘영적인 섬-시코쿠헨로(スピリチュアルな島-四国遍路)’, 부제를 ‘1,200년의 역사와 문화로 통하는 여행(1,200年の歴史と文化に触れ合う旅)’으로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의 콘셉트는 “시코쿠헨로와 접대의 마음의 문화”, “일본의 풍경이 남긴 미지의 관광지”, “1,2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 여행”이다.

8) 森正人(2014) 위의 책, p.151

미국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일본만의 젠스타일을 소개하면서 큰 호응을 받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젠스타일은 비움의 철학인 종교적인 ‘선(禪)’사상에서 확장되어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는 현재성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오늘날 선은 ‘ZEN’으로 읽히며 국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개념이 됐다. ‘선’을 강조하며 상품화한 물품들이 온갖 젠 스타일이라는 미명하에 의식주에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에도 물질화된 ‘ZEN’으로 생산되고 있다.

불교의 ‘선’사상이 일본어 발음인 ‘젠’으로 세계화된 바탕에는 역시 일본이 ‘국가이미지 만들기’의 문화정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면서 일본문화콘텐츠를 오리엔탈리즘으로 소개하며 동양에 대한 인식을 일본문화로 표방하면서 ‘선’도 ‘ZEN’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일례로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성지 순례와 함께 ‘시코쿠헨로’도 주목받고 있다. 바쁜 현대인을 겨냥하여 산사 체험을 통한 ‘영적인 치유’, ‘힐링’을 강조하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함께 할 수 있는 레저 장소로 시코쿠를 소개하여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관광 사업을 현재 가장 절실한 국가 과제로 삼고 ‘관광입국’을 주창하고 있다. 관광 사업의 성공 유무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결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정보자산, 장소자산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재화해야 한다. 일본이 선불교를 현대 서구인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문화콘텐츠로 변용하여 제시하고 이를 ‘ZEN’으로 소비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소비만을 위한 관광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정책의 결과로 주민은 없고 관광만 남은 또 다른 지역 문제인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라는 악영향만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선’은 사전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 무아 정적의 경지에 몰입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동양적 사고에서는 정신적인 수양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서양인에게 ‘ZEN’은 그저 미니멀하고 심플한 동양식 생활방식과 같은 외관적인 치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동양 사찰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얼마 전부터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템플스테이(Templestay)’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중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선’을 ‘ZEN’이 아닌 ‘선’사상으로 체득하며 인식의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된 사례이다.

복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재충전 아이템으로 템플스테이와 함께 순례라는 여행 개념이 증가하고 있다. 순례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 행위이며, 순례길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

하는 유기적인 공간이다. 순례자에게 순례는 길을 따라 공간을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과 동화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러한 템플스테이와 순례가 모두 가능한 장소자산으로 유명한 곳이 시코쿠헨로이다. 특히 시코쿠헨로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와 시코쿠의 크고 작은 산들로 이어지는 지리적 환경의 장점을 잘 활용한 순례길로 유명하다. 시코쿠헨로 88개소 중 가가와현에 있는 81번의 시로미네지(白峯寺)의 홈페이지¹⁰⁾에는 이 시코쿠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 있는 기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회귀 여행”이라며 시코쿠헨로의 장소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코쿠 각 4개현의 공조 하에, 또는 각 현 별로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문화자원이자 장소자산이다.



<그림3> 四国遍路道中圖¹¹⁾

[출판 : 新日本古地図学会(1917)]



<그림4> 四国遍路道中圖¹²⁾

[출판 : 浅野大師堂(1924)]

시코쿠헨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은 지도를 보면 확실해진다. <그림3>과 <그림4>의 고지도에는 시코쿠헨로 88개소를 사찰이나 사원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와 지형의 고저만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5>와 같이 현재의 시코쿠헨로를 안내하는 대부분의 지도는 종교적 목적 이외에 누구라도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의 종합관광안내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종교적 가치는 퇴색되었지만 그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관광콘텐츠로 부활하여 새로운 시코쿠헨로를 제시하고 있다.

10) <http://www.shiromineji.com/henro/> (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11) 新日本古地図学会 소장

http://blogimg.goo.ne.jp/user_image/2a/64/6d4371ec8c8bfb1d667172417a374904.jpg

12) 香川縣立圖書館デジタルライブラリ- 소장

<https://www.library.pref.kagawa.lg.jp/digitallibrary/henro/ezu/detail/DE00210.html>



<그림5> 시코쿠 88개소 제81번 찰소 영장(四国88ヶ所第81番札所霊場)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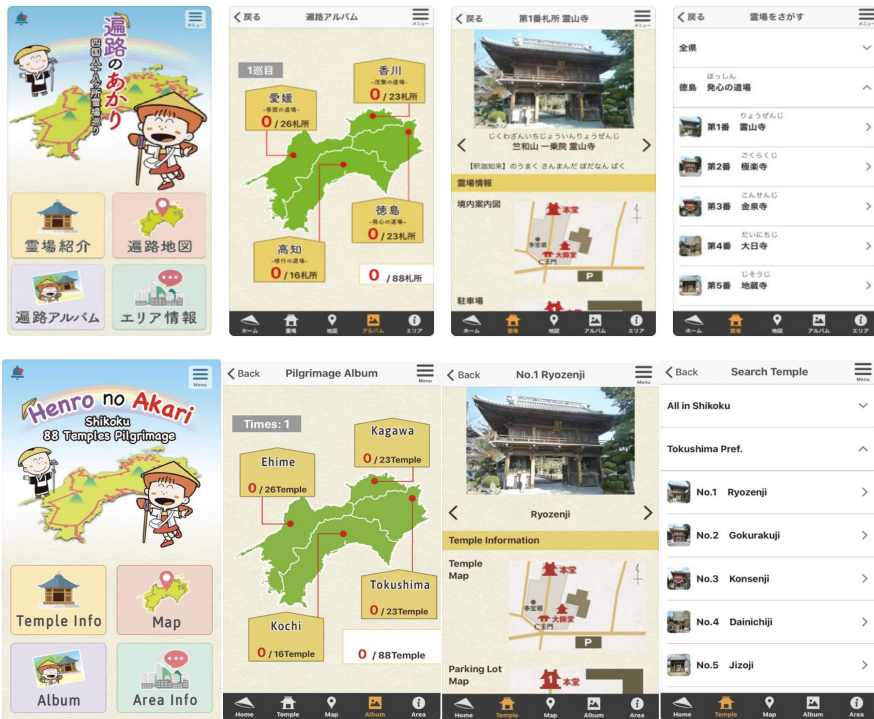
또한 시코쿠헨로 길 대부분은 특별하게 만들어 진 순례도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생활도로이며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도로이다. 이러한 시코쿠헨로 길은 지역주민에게는 생활의 공간이며 순례자들에게는 순례의 공간으로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양가적 공간 성의 존재로 주민 중에는 순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시코쿠의 거주민 입장에서는 낯선 행색을 하고 본인들의 주거지를 돌아다니는 순례자가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요소의 침입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요즘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서 대두되고 있는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성을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조화로운 발전이야 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관광콘텐츠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점에서도 시코쿠헨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오셋다야’라는 문화가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어 관광콘텐츠로 변용되어가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세대나 지역 거주민 외의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시코쿠헨로를 소개하는 홍보도 현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한 예로 스마트폰의 보급이며 현재 ‘시코쿠헨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다.

13) <http://www.shiromineji.com/henro/> (2019년 05월 01일 yahoo japan 검색)

iPhoneスクリーンショット

<그림> 헨로의 등불(遍路のあかり)¹⁴⁾

<그림>은 시코쿠전력(四国電力)에서 만든 아이폰 유저를 위한 앱(App)이다. 앱의 이름은 ‘헨로의 등불(遍路のあかり)’이며, 부제는 ‘시코쿠 88개소 순례 동행이인(四国八十八ヶ所巡り同行二人)’이다. 즉 스마트기기를 전설 속의 흥법대사를 의인화시킨 것으로 현재의 순례자와 전통의 흥법대사를 동시적인 공간에 위치시킨 사례이다. 앱을 활용한 지역 홍보를 주체적으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의 효과를 주고 있다. 혼자 떠나도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은 방법을 제시한다. 이 앱은 영어 버전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이다. 영어 버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앱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헨로 노 아카리(Henro no Akari)’라고 일본어 발음 그대로 음차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ZEN’ 역시 일본어의 ‘선’을 세계에 일본문화로서 발신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그대로를 각인시켜 자연스럽게 고유명사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사회에 자국의 문화독자성을 알리고 이를 문화 콘텐츠화하는 요소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14) https://www.yonden.co.jp/cnt_henrosupport/ (2019년 06월 13일 최종확인)

5. 마치며

장소자산인 ‘시코쿠헨로’가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화 되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라 유연한 변화를 해온 시코쿠헨로는 그 명맥을 이어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현대의 관광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살리기와 관광이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관광콘텐츠로의 변용은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종교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며 현대인에게 필요불가결한 건강, 힐링 등의 관심사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시코쿠헨로이다. 수행을 했던 과거의 순례길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된 풍경과 음식 등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은 시코쿠헨로를 헤이안 시대에서 현대인의 힐링 여행길로 부활시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코쿠헨로는 순례하는 방법, 순례 수단, 가치 등이 변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며 시코쿠의 장소자산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약 1,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다양한 콘텐츠가 축적되어 온 시코쿠헨로가 시코쿠 지역 살리기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코쿠헨로는 지역 활성화의 매개체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장소자산이다.

【參考文獻】

- 김지영(2009)『남자한테 차여서 시코쿠라니-서른살 오펜로 혼자 걷는 1,400km』책세상
 최상희(2016)『시코쿠를 걷는 여자-시코쿠 순례길. 혼자이면서 함께하는 여행』푸른향기
 노성환(2017)「일본 시코쿠 순례 속의 한국문화」『일어일문학』74, pp.249-274
 박규태(2006)「일본인과 순례 : 시코쿠헨로를 따라서」『종교문화비평』Vol 9, pp.235-259
 손장원(2016)「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仁川新四国八十八靈場) 연구」『인천학연구』24, pp.43-77
 이경화(2015)「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홍범대사상과 88영장」『동아시아역사논총』47, pp.188-190
 이은경(2012)「일본 시코쿠헨로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일어일문학연구』81, pp.369-389
 新城常三(1982)『新稿社寺参詣の社会経済史的研究』塙書房
 武田明(1976)『巡礼の民俗』岩崎美術社
 星野英紀(1981)『巡礼：聖と俗の現象学』講談社
 森正人(2014)『四国遍路』中央公論社
 帆苅猛(2010)「現代四国の＜歩き遍路＞に見る「癒し」の一樣相」『人間環境学会紀要』13, pp.3-17
 森正人(2001)「遍路道にみる宗教的意味の現代性道をめぐるふたつの主体の活動を中心に」『人文地理』
 Vol.53 No.2, pp.75-91
 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1173800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95&page=50&term_cate=&term_

word=&term_key=&term_auth=

四国おへんろ.net <https://www.shikoku88.net/ohenro-guide/map/>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91170.pdf>

白峯寺 <http://www.shiromineji.com/henro/>

新日本古地図学会 http://blogimg.goo.ne.jp/user_image/2a/64/6d4371ec8c8bfb1d667172417a374904.jpg.

香川縣立圖書館デジタルライブラリ-<https://www.library.pref.kagawa.lg.jp/digitallibrary/henro/ezu/detail/DE00210.html>

四国電力株式会社 https://www.yonden.co.jp/cnt_henrosupport/

논문투고일 : 2019년 06월 15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6일

〈要旨〉

장소자산(場所資産)의 변용(變容) 양상(樣相)으로 본 ‘시코쿠헨로’

변정아

본 연구는 ‘시코쿠헨로’가 가지고 있던 역사자원을 현재의 시코쿠의 관광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자산의 변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시코쿠헨로 88개소’는 시코쿠 4개 현 전체를 관통하며 분포되어 있는 시코쿠 전체 자산이다. 따라서 4개현 지자체의 지역 정책 시스템 하에 지역 간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시코쿠 전체 장소자산으로서 효과를 상승시킬 것이다. ‘시코쿠헨로’는 일본 불교의 종류를 총 망라하고 있는 독특한 순례길이므로 대중은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순례를 할 수 있다. 현재의 시코쿠헨로는 종교적 가치의 엄중함 없이 유연한 방식의 순례를 권장하기 때문에 국적,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관광객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순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순례 행위 자체는 현재까지 전통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지만 시간에 따라 형태, 의미, 목적은 다소 변용되었다. 따라서 시코쿠헨로도 시대에 맞게 종교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병의 치유·공양 외에, 마음의 위안을 찾아 휴식과 건강증진, 등산이나 하이킹의 연장, 관광여행의 일환 등, 다양한 형태로 현대인의 힐링 여행으로서 재발견되며 관광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A Study on ‘Shikoku Henro’ Viewed as a Change Aspect of Place Asset

Byun, Jung-A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hange of place asset to utilize the historical resources of ‘Shikoku Henro’ as tour contents of present Shikoku.

‘88 Places in Shikoku Henro’ are the asset of the whole Shikoku, distributed throughout 4 hyun of Shikoku. Therefore, the effect of the place asset of the entire Shikoku can be improved when regional agreement and cooperation is made under the regional policy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s of 4 hyun. ‘Shikoku Henro’ is a unique pilgrimage that encompasses the kinds of Japanese Buddhism, so the people can make a pilgrimage without being tied to a sect. Since current Shikoku Henro encourages a flexible way of pilgrimage without a strict religious value, visitors are free to choose how to make a pilgrimag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gender, or age.

The pilgrimage act itself retains life as a tradition so far, however its form, meaning, and purpose have been somewhat changed along with time. Accordingly, Shikoku Henro is rediscovered as a healing journey of modern people in various ways such as relaxation, health promotion, extension of the mountain climbing and hiking, a part of travel, besides religious performance proper for Shikoku Henro Era, and is revived as a tourism content.